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6년 7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박종우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jongwoo@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					
(전기비연율, %)								(기말기준, %)					
		144/4	151/4	2/4	3/4	4/4	161/4			16.4월	5월	6월	7.13일
미	국	2.1	0.6	3.9	2.0	1.4	1.1	미국		1.83	1.85	1.47	1.47
유로지역		1.5	2.2	1.5	1.3	1.7	2.2	독일		0.27	0.14	-0.13	-0.06
일	본	2.1	5.2	-1.7	1.7	-1.8	1.9	영국		1.60	1.43	0.87	0.75
중 국 ¹⁾		7.2	7.0	7.0	6.9	6.8	6.7	브라질		12.47	12.99	12.06	11.97
								인도		7.44	7.47	7.45	7.28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소비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15.3/4	4/4	16.1/4	2/4	16.3월	4월	5월	6월
GDP 성장률	3.3	2.6	2.8	3.1	2.8	..	-	-	-	-
GDP 민간소비	1.7	2.2	2.2	3.3	2.2	..	-	-	-	-
소매판매	2.0	3.9	3.6	6.1	4.6	..	5.8	4.2	5.1	..
(S.A, 전기비)	-	-	(1.3)	(3.1)	(-1.0)	..	(4.4)	(-0.5)	(0.6)	..
GDP 설비투자	6.0	5.3	6.7	3.9	-4.5	..	-	-	-	-
설비투자지수	5.2	6.3	10.2	1.6	-7.1	..	-7.2	-2.8	2.9	..
(S.A, 전기비)	-	-	(5.2)	(-1.2)	(-8.7)	..	(6.1)	(3.1)	(0.0)	..
GDP 건설투자	1.1	3.9	5.6	7.5	9.6	..	-	-	-	-
건설기성액	-0.7	2.3	6.2	8.0	14.8	..	23.5	17.1	20.2	..
(S.A, 전기비)	-	-	(6.4)	(0.0)	(9.4)	..	(7.4)	(-6.3)	(2.9)	..
수출(통관)	2.3	-8.0	-9.5	-12.0	-13.3	-6.6	-8.1	-11.1	-5.9	-2.7
(일평균, 억달러)	(21.1)	(19.3)	(18.7)	(18.6)	(17.4)	(18.8)	(17.9)	(18.3)	(18.5)	(19.7)
제조업 생산	0.3	-0.6	-0.3	0.1	-0.4	..	-0.6	-2.6	4.5	..
(S.A, 전기비)	-	-	(1.7)	(-0.7)	(-0.7)	..	(-1.1)	(-1.1)	(2.6)	..
서비스업 생산	2.3	2.8	2.9	3.3	2.8	..	2.5	1.9	3.4	..
취업자수 증감 ¹⁾	533.0	336.9	309.8	375.9	287.1	289.1	299.5	252.3	260.6	354.3
(공공부문 ²⁾ 제외)	(541.2)	(358.1)	(336.2)	(333.2)	(234.7)	(221.3)	(245.3)	(192.4)	(188.9)	(282.5)
고용률	60.2	60.3	60.9	60.5	59.1	60.8	59.6	60.3	61.0	61.2
(전년동기대비, %p)	(0.7)	(0.1)	(0.0)	(0.1)	(0.1)	(0.1)	(0.1)	(0.0)	(0.1)	(0.3)
실업률	3.5	3.6	3.4	3.1	4.3	3.8	4.3	3.9	3.7	3.6
(전년동기대비, %p)	(0.4)	(0.1)	(0.1)	(-0.1)	(0.2)	(0.0)	(0.3)	(0.0)	(-0.1)	(-0.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6%에서 1.7%로 소폭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6.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1.3	1.0	1.0	0.8	0.8
(전월비)	(0.5)	(-0.3)	(0.1)	(0.0)	(0.0)
▪ 농축수산물	5.6	5.4	5.5	1.3	-0.7
(농산물)	(7.2)	(7.4)	(6.5)	(0.2)	(-4.6)
▪ 공업제품	-0.2	-0.9	-0.6	-0.9	-0.4
(석유류)	(-8.0)	(-12.4)	(-11.8)	(-11.6)	(-9.6)
(석유류 제외)	(0.9)	(0.8)	(1.1)	(0.8)	(1.0)
▪ 서비스	2.4	2.3	2.2	2.2	2.2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1.8	1.7	1.8	1.6	1.7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대비, %)				
	16.2월	3월	4월	5월	6월
주택 매매가격	0.1	0.0	0.0	0.1	0.1
▪ 수 도 권 ¹⁾	0.1	0.1	0.1	0.1	0.2
(서 울)	(0.1)	(0.1)	(0.1)	(0.2)	(0.3)
▪ 광 역 시 ²⁾	0.1	0.0	0.0	0.0	0.0
▪ 지 방 ³⁾	0.0	0.0	0.0	0.0	-0.1
주택 전세가격	0.2	0.1	0.1	0.1	0.1
▪ 수 도 권 ¹⁾	0.3	0.2	0.2	0.2	0.2
(서 울)	(0.3)	(0.2)	(0.2)	(0.2)	(0.2)
▪ 광 역 시 ²⁾	0.1	0.1	0.1	0.0	0.0
▪ 지 방 ³⁾	0.1	0.0	0.0	0.0	0.0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저유가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브렉시트 결정 후 주가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이 일시 급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큰 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주가, 환율¹⁾ 및 가계대출

	16.2월	3월	4월	5월	6월	7.13일
국고채(3년)금리(%)	1.45	1.44	1.45	1.50	1.25	1.21
국고채(10년)금리(%)	1.79	1.79	1.79	1.81	1.47	1.39
KOSPI	1,917	1,996	1,994	1,983	1,970	2,006
원/달러 환율	1,237	1,144	1,139	1,192	1,152	1,146
원/100엔 환율	1,095	1,019	1,062	1,071	1,122	1,099
은행 가계대출 ²⁾ 증감(조원)	2.9	4.9	5.2	6.7	6.6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브렉시트의 파급영향,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